

4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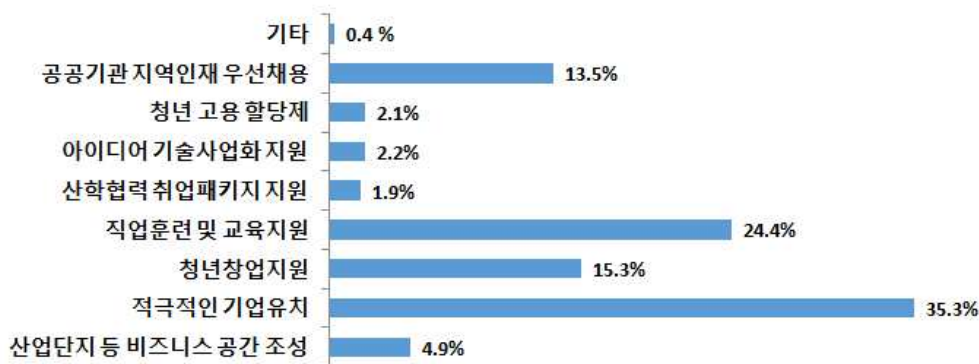
1)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일자리 창출관련 우선 투자해야할 사업은
「적극적인 기업유치」,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 중 우선 투자해야할 사업은「적극적인 기업유치(35.3%)」,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사업(24.4%)」, 「청년창업지원(15.3%)」, 「공공기관 지역인재우선채용(13.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모두 「적극적인기업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그림 4-1> 청년일자리 창출대책



<표 4-1>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단위: %)

	계	산업단지 등 비즈니스 공간 조성	적극적인 기업유치	청년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지원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	청년 고용 할당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기타
2017년	100.0	4.9	35.3	15.3	24.4	1.9	2.2	2.1	13.5	0.4
중부권	100.0	7.4	39.7	11.2	26.0	2.2	0.8	0.4	11.3	1.0
북부권	100.0	2.1	35.8	19.1	21.4	3.2	1.9	4.7	11.8	0.0
서남부권	100.0	4.2	30.8	16.9	24.5	0.8	3.7	2.3	16.7	0.0
남자	100.0	5.6	36.6	16.0	23.0	2.8	2.6	1.5	11.6	0.3
여자	100.0	4.1	33.9	14.4	26.0	0.9	1.7	2.9	15.7	0.5
15~29세	100.0	1.5	32.1	14.3	30.3	0.0	0.0	3.4	18.4	0.0
30~39세	100.0	6.5	31.8	7.5	31.2	5.4	0.7	2.8	14.1	0.0
40~49세	100.0	4.7	32.6	16.5	23.0	3.8	5.3	2.8	10.6	0.7
50~59세	100.0	5.9	37.5	14.5	25.1	1.9	1.7	1.6	11.9	0.0
60~69세	100.0	3.5	33.5	18.4	21.8	0.5	2.3	2.6	17.3	0.0
70세 이상	100.0	6.4	39.2	16.4	20.7	1.6	2.6	1.1	11.0	1.1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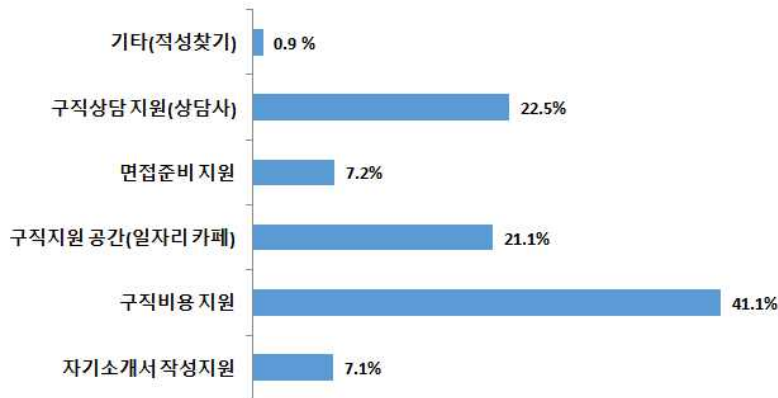
2) 구직활동지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구직비용지원」, 「구직상담지원」

○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중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은 「구직비용지원(41.1%)」, 「구직상담지원(22.5%)」, 「구직지원공간(21.1%)」, 「면접준비지원(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구직비용지원」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5세~29세, 30대, 50대는 「구직상담지원」, 40대, 60대, 70세 이상은 「구직지원공간」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그림 4-2> 구직활동 지원



<표 4-2> 구직활동 지원

(단위: %)

	계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구 직 비 용 지 원	구직지원공간 일 자리 카 페	면접준비지원	구직상담지원 상 담 사	기 타 (구 인 회 사 목 록)
2017년	100	7.1	41.1	21.1	7.2	22.5	0.9
중 부 권	100	8.0	41.6	23.9	8.7	17.0	0.9
북 부 권	100	12.2	45.2	14.2	13.0	15.4	0.0
서 남 부 권	100	3.3	38.3	22.5	2.4	32.0	1.5
남 자	100	8.2	42.4	18.5	6.9	23.9	0.1
여 자	100	5.9	39.7	24.0	7.6	20.9	1.9
15~29세	100	9.8	43.5	7.6	10.4	24.4	4.3
30~39세	100	6.1	34.8	25.6	5.4	28.1	0.0
40~49세	100	4.6	43.5	22.5	8.0	21.5	0.0
50~59세	100	8.0	42.7	20.0	6.3	22.7	0.3
60~69세	100	8.4	35.9	27.2	5.2	23.0	0.3
70세 이상	100	5.8	43.3	22.7	7.8	19.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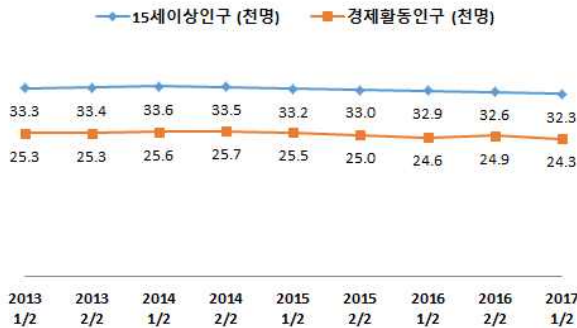
자료: 2017년 신안군 사회조사

3)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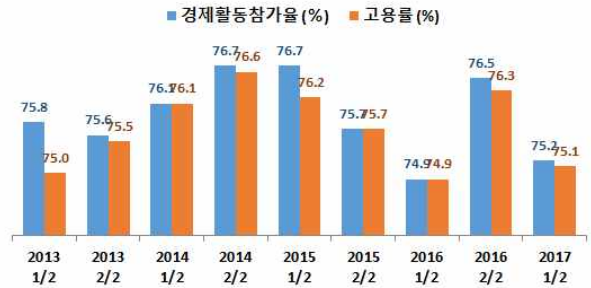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 75.2%, 고용률 75.1%

- 2017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는 24.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24.6천명) 0.3천명 감소
- 2017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75.2%로 전년동기대비(74.9%)0.3%p 증가
- 2017년 상반기 고용률은 75.1%로 전년동기대비(74.9%) 0.2%p 증가
- 실업률은 0.1%임

<그림 4-3> 경제활동인구



<그림 4-4>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표 4-3>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실업률(%)
2013 1/2	33.3	25.3	75.8	75.0	84.0	1.1
2013 2/2	33.4	25.3	75.6	75.5	84.0	0.1
2014 1/2	33.6	25.6	76.1	76.1	84.5	0.0
2014 2/2	33.5	25.7	76.7	76.6	86.4	0.2
2015 1/2	33.2	25.5	76.7	76.2	85.1	0.7
2015 2/2	33.0	25.0	75.7	75.7	85.1	0.0
2016 1/2	32.9	24.6	74.9	74.9	83.7	0.1
2016 2/2	32.6	24.9	76.5	76.3	84.6	0.3
2017 1/2	32.3	24.3	75.2	75.1	83.3	0.1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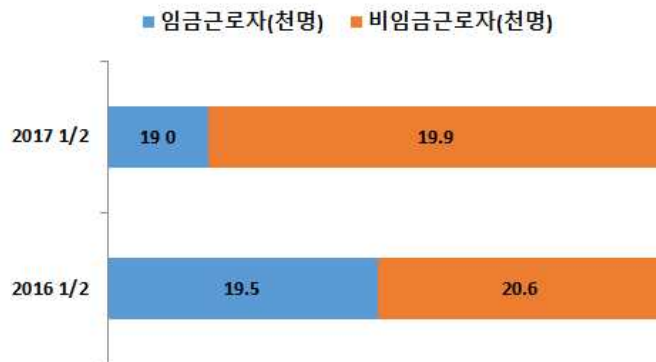
주. 상대표준오차(C.V.)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전년동기대비 임금근로자수 0.3천명 증가, 비임금근로자수 0.7% 감소

- 2017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24.3천명 중 임금근로자는 4.4천명, 비임금근로자는 19.9천명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0.3천명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0.7천명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61.4%로 전년동기대비 5.3%p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38.6%로 5.3%p 감소

<그림 4-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표 4-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연도	취업자수 (천명)	임금근로자수 (천명)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 자(%)	비임금근로자수 (천명)
2013 1/2	25.0	3.5	54.3	45.7	21.5
2013 2/2	25.2	3.8	55.3	44.7	21.4
2014 1/2	25.6	4.6	60.9	41.3	21.0
2014 2/2	25.6	4.6	60.9	39.1	21.1
2015 1/2	25.3	4.6	60.9	39.1	20.7
2015 2/2	25.0	4.1	58.5	41.5	20.9
2016 1/2	24.6	4.1	56.1	43.9	20.6
2016 2/2	24.9	4.8	62.5	39.6	20.0
2017 1/2	24.3	4.4	61.4	38.6	19.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